2월 7일(월) / 렘 10-12

▶ 내용요약 :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헛된 풍습을 따라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 이유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내려달라고 호소한다(10장).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선포하며 선조들이 언약을 깨뜨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말하며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한다(11장). 이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반역자들이 더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여호와는 자신 소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며 악한 이웃을 뿌리를 뽑겠다고 선포하신다(12장)

▶ 질문 : 만군의 여호와는 사람의 무엇을 감찰하시는 분인가?
▶ 생각하기 : 분별이 없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듣지 않는다. 우리는 과연 많은 이론과 대안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가?

2월 8일(화) / 렘 13-15

▶ 내용요약 :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베 띠를 유브라데에 감추고 그 띠가 썩는 것을 보게 하는 상징행위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취하여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교만하지 말라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북방에서 온 자들이 네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한다(13장). 예레미야는 가뭄으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언급하여 유다 백성이 죄를 고백하나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한다. 또한 여호와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멸망할 것을 선포한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한다(14장). 이에 여호와는 모세와 사무엘의 간구가 있을 지라도 므낫세의 죄로 인해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선포한다.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며 여호와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자 여호와는 자신이 예레미야의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15장)

▶ 질문 : 거짓 선지자들은 기근이 아닌 무엇을 선포했는가?
▶ 생각하기 : 거절당하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왕 여호와께 거절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2월 9일(수) / 렘 19-22

▶ 내용요약 :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깨며 유다와 예루살렘이 행한 범죄로 인해 파멸할 것을 선포하고 도벳의 땅처럼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19장). 이에 성전의 총감독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가두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마골밋사빕(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당함을 여호와께 호소하며 자신의 상황을 탄식한다(20장). 그러자 여호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을 왕 시드기야에게 선포하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선포한다. 또한 여호와는 정의를 상실한 다윗의 집이 행한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21장).예레미야는 유다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며 패망을 선포한다. 또한 요시야의 아들 살룸(여호아하스)이 잡혀 간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패망을 선포한다(22장)

▶ 질문 : 여호와는 힌놈의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되겠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나라의 멸망을 목도하고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나 거짓 선지자의 평안을 의지하고 그 멸망길로 달려가는 자들은 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2월 10일(목) / 렘 23-25

▶ 내용요약 : 예레미야는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간음하고 사악하고 우매하고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근거로 그들에게 독한 물을 먹일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평안을 외치는 그들을 심판을 선포한다. 또한 그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 수치를 당할 것을 선포한다(23장). 예레미야는 여고냐와 고관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 간 후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이상을 통해 포로된 자들은 좋은 무화과 같이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저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24장).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갈대인의 땅이 죄악으로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25장)

▶ 질문 :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칼과 기근과 무엇을 보낸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우리는 때로 우리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여러 정보와 점술가 등 여러 신적 존재와 교통한 한다는 자들에게 우리 미래를 묻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 일에 집착하는가?

2월 11일(금) / 렘 26-28

▶ 내용요약 :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킬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포한다. 그러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나 지방 장로중 몇 사람이 과거의 사건을 들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했다(26장).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와 그를 찾아온 모든 왕들 앞에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선포한다(27장).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간 자들이 이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선포에 대해 대항하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꺽어 버리고 이것 여호와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죽음을 선포한다(28장)

▶ 질문 :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도운 사반의 아들은 누구인가?
▶ 생각하기 :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고 그것이 옳은 말은 아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라도 옳은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과연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2월 12일(토) / 렘 39-42

▶ 내용요약 :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한다. 시드기야는 아라바까지 도망가나 붙잡혀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간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서 풀려난다. 여호와는 예레미야가 감옥에게 있을 때 구스인 에벳멜렉이 구원받을 것을 선포한다(39장). 예레미야는 사령관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나 풀어주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자 백성 가운데 살고 유다가 시드기야 대신 그다랴에게 통치권이 넘어오자 그다랴는 바벨론을 섬길 것을 요청한다. 그러자 요하난이 이스마엘은 암몬의 첩자이기에 죽여야 한다고 하나 그다랴는 거절한다(40장). 그다랴는 이스마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고 암몬으로 가고자 했으나 요하난이 따라가자 그는 암몬으로 도망간다(41장).요하난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갈 길을 위해 여호와께 묻기를 요청하고 예레미야는 가나안에서 바벨론을 섬기고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선포한다(42장)

▶ 질문 : 예레미야를 선대한 바벨론의 사령관은 누구인가?
▶ 생각하기 : 잃어버린 주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을 거부하다 결국 그들의 주권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2월 13일(일) / 렘 43-46

▶ 내용요약 : 요하난과 오만한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간다. 그곳에서 여호와는 느브갓네살이 애굽을 멸망시킬 것을 선포한다(43장). 여호와는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다 유다의 멸망을 보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온 자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올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44장).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평안을 찾지 못함을 토로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킨다(45장).여호와는 애굽 느고의 군대가 바벨론에게 패망할 것을 선포하며 애굽 사방이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 질문 :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러 준대로 책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 생각하기 : 희망, 이것이 우리를 깊은 암흑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고 참고 인내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는 약속은 우리가 기다리는 희망이다.